

눈 오는 지도地圖

윤동주

순이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안을 돌아다녀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歷史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 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